제 15 장 제국의 통치, 법가의 철학

1. 제왕 통치술의 확립, 한비자(韓非子)

1) 유가나 묵가의 정치철학을 비판하다

◇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살펴보자. 아들을 낳으면 서로 축하하지만, 딸을 낳으면 그 애를 죽이고 만다. 이들은 모두 부모의 품 안에서 나왔다. 그러나 사내아이는 축하를 받고 계집아이는 죽임을 당하는 것은 뒷날의 이점을 생각해보고 오래가는 이득을 따져본 뒤에 나온 행위다. 따라서 부모도 자식에 대해 계산하는 마음으로 서로 대하는데, 하물며 자식과 부모 간의 사랑도 없는 신하와 군주 사이의 관계는 어떻겠는가? 지금 학자들은 '이득을 찾는 마음'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도리'에서 출발하라고 군주들에게 유세하고 있다. 이것은 군주에게서 부모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랑을 논의할 때 부모나 군주 사이의 구별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기이며 속임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명한 군주는 이런 사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且父母之於子也, 産男則相賀, 産女則殺之. 此俱出父母之懷衽, 然男子受賀, 女子殺之者, 慮其後便, 計之長利也. 故父母之於子也, 猶用計算之心以相待也, 而況無父子之澤乎? 今學者之說人主也, 皆去求利之心, 出相愛之道, 是求人主之過於父母之親也, 此不熟於論恩, 詐而誣也, 故明主不受也.『韓非子』「六反」)

→ 한비자(韓非子, BC280?~BC233)는 유가의 인(仁)이나 묵가의 겸애(兼愛)란 결국 어떤 정치적 효과도 없는 것이라고 논증하고 있다. 순자의 제자답게 한비자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이해한다. 이처럼 한비자는 이상적인 인간형이 아닌 현실적인 인간형으로부터 정치를 사유하려고 하였던 최초의 정치철학자였다고 할 수 있다.
→ 한비자에 있어 법(法)은 기본적으로 상벌의 체계를 의미한다. 강력한 공권력으로 법을 지키면 상을, 어기면 벌을 내린다. 한비자는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법을 지켜서 상이라는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결국 이런 조치는 피통치자의 내면에 법이라는 가치를 내면화시키게 될 것이다.

2) 법, 술, 세 개념을 제국의 정치철학 이념으로 통합하다.

◇'술(術)'은 사람의 재능에 따라 그에게 관직을 주고, 그 관직의 명 위에 따라 그것에 합당한 임무를 수행하기를 요구하며,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쥐고서 여러 신하의 재능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군주가 장악해야 하는 것이다. '법(法)'을 시행한다는 것은 관청에서 법령을 명백하게 공포하고, 반드시 형벌이 있음을 백성들에게 주지시키며, 법을 조심하여 지키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법령을 어기는 자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다. 이것은 신하들이 스승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군주에게 술이 없으면 위에서 폐단이 있게 되는 것이고 신하에게 법이 없으면 아래에 어지러움이 있게 된다. 이 둘은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 모두 제왕에게는 필수적인 통치수단이다.
(術者, 因任而授官, 循名而責實, 操殺生之柄, 課群臣之能者也,

此人主之所執也. 法者, 憲令著於官府, 刑罰必於民心, 賞存乎愼法,
而罰加乎姦令者也, 此臣之所師也. 君無術, 則弊於上; 臣無法, 則亂於下,
此不可一無, 皆帝王之具也.『한비자(韓非子)』「정법(定法)」)

→ 철학적으로 중요한 대표적인 법가 사상가로는 세 사람을 거론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군주의 통치술, 즉 술(術)을 강조했던 신불해(申不害, ?~BC337?)이고, 두 번째는 정치적 권력이나 공권력의 힘, 즉 세(勢)를 강조했던 신도(愼到, BC395~BC315)였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군주가 전체 사회를 통제하는 방법, 즉 법(法)을 강조했던 상앙(商鞅, ?~BC338)이었다.
→ 군주란 세(勢)를 장악하고 있는 인간이다. 그러나 그는 이 세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법과 술을 동시에 활용해야만 한다. 한비자에 있어 술(術)은 법(法)을 집행할 수 있는 관료를 선발하고 감찰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法)은 인간의 이익 감정에 호소하는 상벌의 체계이다.

3) 한비자의 숨겨진 속내

◇ 당계공(堂谿公)이 한비자에게 말하였다. "저는 예(禮)를 따르고 겸양하는 것이 몸을 온전히 하는 기술이고, 행실을 닦고 지혜를 감추는 것이 일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선생께서는 법술을 주장하여 법도를 설정하시니 제 생각에는 선생의 몸이 위태로울까 염려됩니다. (…)"
한비자는 말했다. "저는 선생의 말씀을 잘 이해합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권력의 자루나 민중을 가지런히 하는 제도 등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왕(先王)의 가르침을 폐하고 비천한 저의 주장을 실천하려는 것은 법술을 세우고 법도를 설정하는 것이 백성을 이롭게 하고 민중들을 편하게 해주는 도리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란을 일으키는 군주나 어리석은 군주로부터 받을 불행을 겁내지 않고 반드시 민중들의 이익을 가지런히 하도록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어질고 지혜로운 행동[仁智之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란을 일으키는 군주나 어리석은 군주로 받을 불행을 겁내어 죽음의 피해를 피하고 자신의 몸을 보존할 줄은 알지만 민중들의 이익을 보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탐욕스럽고 비열한 행동입니다. 저는 탐욕스럽고 비열한 행동을 차마 못 하겠고 어질고 지혜로운 행동을 훼손하고 싶지 않습니다."
堂谿公謂韓子曰: "臣聞服禮辭讓, 全之術也; 修行退智, 遂之道也.
今先生立法術, 設度數, 臣竊以爲危於身而殆於軀. (…)" 韓子曰:
"臣明先生之言矣. 夫治天下之柄, 齊民萌之度, 甚未易處也.
然所以廢先王之敎, 而行賤臣之所取者, 竊以爲立法術, 設度數, 所以利民萌,
便衆庶之道也. 故不憚亂主闇上之患禍, 而必思以齊民萌之資利者,
仁智之行也. 憚亂主闇上之患禍, 而避乎死亡之害,
知明夫身而不見民萌之資利者, 貪鄙之爲也. 臣不忍嚮貪鄙之爲,
不敢傷仁智之行.『韓非子』「問田」

→ 지금까지 통념에 따르면 한비자의 정치철학은 겉으로는 분명히 군주를 위해 전개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실 민중들의 이익을 위해서 군주를 위하는 척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한비자가 강조하던 법은 민중에 대한 군주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은 결국 상과 벌의 체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가 자의적이고 변덕적인 군주를 넘어서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그가 꿈꾼 군주나 법은 최종적으로 민중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었다.
→ 이 점에서 한비자는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가 이해하고 있던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 1469~1527)와 유사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계약론'에서 루소는 마키아벨리가 "국가의 압제 속에서 자유에 대한 사랑을 감추지 않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루소는 외관상으로 군주주의적인 '군주론'의 속내는 '로마사 논고(리비우스 논고)'의 공화주의라고 강조했던 것이다.